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블록 버스터 미술 기획전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장거리 여행을 가기 어렵거나 주말에 시내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다양한 장르의 전시와 더불어 관람객의 체험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들의 문화적 감수성, 예술적 창의력 향상은 물론 갖가지 교육적 효과를 노린 다양한 체험행사들이 눈길을 끈다. '스누피 라이프 디자인전'과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그리고 마음전' 등 꼭 챙겨볼만한 대규모 불교 관련 특별 전시 두 개를 소개한다.



스태판 존스의 '스누피' 인형.

스누피 라이프 디자인 전

예술의 전당 9월 16일까지



쿠사마 아요이의 '점박이 스누피'.

세계적 아티스트 27인 작품

일상속 아기자기한 아이tem 통해 행복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해

치 스누피의 팔상도가 전개돼 있는 듯한 느낌을 짙게 불자들이라면 빠트리지 말고 일부러라도 챙겨볼 만 하다.

일본의 유명한 전시 예술가이자 소설가인 쿠사마 아요이는 점박이 무늬, 음식, 네트 강박증을 지닌 스누피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행복'이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아리타 마사후미의 작품이나 주문식 도색 작업의 일종인 커스텀페인팅으로 재탄생한 스누피를 그린 구라시나 마사타카의 작품도 스누피의 새로운 해석을 나타내 한동안 발길을 머물게 만든다. 이외에도 스누피의 모습을 본뜬 란제리와 목걸이를 비롯해 향수, 홍차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에 아기자기한 아이tem을 통해 '스누피의 행복'을 보여주게 된다.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의 수준 높은 작품과 새로운 주제, 그리고 대중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이번 전시는 세계 순회전시 중 여러 도시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을 만큼 대중적인 인기가 높다.

스누피 전시회 사무국의 안소민씨는 "이번 전시는 찰스 슐츠가 '피너츠'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던 행복의 힘을 다양한 디자인 작품으로 선보이는 것"이라며 "스누피의 향수가 짙게 깔려 있는 30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미술 감각을 높여주려고 함께 찾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02)464-4266

김주일 기자

'마음의 행복' 전하는 전시회 2題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국립중앙박물관 9월 16일까지

'사경(寫經)'이란 글자 그대로 경전을 베껴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경전은 판각본이건 필사본이건 대체로 어렵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를 그려 넣기도 한다. 글자를 모르던 문장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림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불교 그림을 변상도(變相圖)라고 한다. 특히 사경에 삽입된 삽화를 '사경변상도(寫經變相圖)'라고 하는데 대체로 불경 첫머리에 붙인 그림을 말한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소재 보광사 본존불 복장(腹藏)에서 1007년 개성 총지사에서 판각한 목판본으로 간행된 '보현인다라니경(약칭 보현인경)'이 공개됐는데 그 첫머리에도 어김없이 변상도가 나온다.

리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국보 제196호>에도 변상도가 있다. 당나라 '실지난타(實地難陀, 652-710) 스님이 번역한 <신역화엄경>에 첨부된 사경변상도로서 신라 경덕왕 13-14년(754-755) 무렵 신라 황룡사 승려 연기법사(緣起法師)가 발원해 제작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10권 1축과 44-50권 1축 등 2축인데, 변상도는 1권의 앞에 붙어 있던 것이다.

이를 비롯한 국내의 사경변상도 100여 점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기획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에서 마련한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그리고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여기에는 국보 7점, 보물 17점, 일본의 중요문화재 2점이 포함됐다.

사경변상도 종합전은 그동안 많이 시도됐으나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어 생각에만 그쳐왔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1년간 기다려 온 며칠 안되는 여름휴가 만큼이나 달콤하고 귀중한 것 같다. 전시품들은 사경변상도가 고려시대에 왕성했던 이유로 이 시대 작품에 집중돼 있다.

일본 교토국립박물관에서 대역한 <대보적경(大寶積經)>은 1006년 목종 모후인 천추대후가 외척 김지양(金致陽)과 함께 발원한 감지은니금자대장경의 유일한 현존자이다. 이곳 변상도는 세 보살이 연화족좌(蓮花足座)에 서서 산화공양(散花供養)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 변상도

국내외 100여 점 한자리서 전시

국보·보물·일본 문화재 2점도 고려시대 사경 작품세계 볼 기회

이 외에도 리움미술관 소장 불공전색신변진언경(不空絹索神變眞言經) 권 제13(국보 210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중합부(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衆衆合部),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71(중국 원대, 1291년 작) 등이 선보인다. (02)2077-9271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고려시대의 <화엄경> 그림 '김지금자변상도'.



3차원 공간을 통해 스누피가 길을 잃고 빠져든 세계에서 만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그린 수묵애니메이션 '행복은 열반, 꽃은 붉다'



외교법인 한국 - 미얀마 친선교류협회가 적극추천하는

미얀마 성지순례

■ 미얀마의 종정 큰스님 친견 ■

부처님의 위신영이가 가득한 기도처로 유명한 짜익티오에서의 대법회 봉행 에스굿투어가 최초로 개척한 성지!!!!!!

◇ 짜익티오상 파고다 방문 및 우 쎄나디바 큰스님 친견 (짜익티오: 병마퇴치, 병고액난소멸로 환희심이 가득한 기도처로 유명한 곳)

9.14 / 10.12 2회출발!
양곤-바간-헤호-짜익티오 7일

₩ 1,540,000원

(포함: 탁발공양행사, 특급호텔, 성지순례 입장료, 인천공항세, 출국세, 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탑, 미얀마비자발급비, 미얀마 공항세, 미얀마샤브샤브)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주) 에스 굿 투어
The Good Tour tel: 02-365-7747 fax: 02-365-2994

* 에스굿투어는 수익의 10%를 미얀마의 한국기술종합대학교 운영기금으로 기부합니다.